

'행복한 자녀 교육 1번지'

순창군, 올해부터 대학 진학 축하금 신입생 200만원 지원 '화제'

순창군이 올해부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해 화제다.

농촌 지역인 순창군은 대학교가 없어 모든 학생이 도시로 진학을 할 수밖에 없어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에 순창군은 대학 생활에 필요한 주거비와 생활비 성격의 축하금을 지원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애상심 고취를 위한 대학 진학 축하금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이며, 학생 1명당 2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4억 6천만원의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축하금 지원은 신규 사회보장제도 시행시 거쳐야 하는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지만, 관계 공무원이 수시로 부처를 방문하는 등 기나긴 설득 끝에 이번 지원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대학 축하금 신청은 대학 입학시기인 3월부터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순창군이 올해부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해 화제다.

이외에도 군은 교육 1번지 순창 조성을 목표로 고등학생 국외탐방 지원 사업,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순창군 육천인재숙 운영,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전북대 순창분원 운영 등 순창만의 특색있는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문예, 예술, 체육,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방과후 학교 지원, 미술아카데미, 오케스트라, 4차 산업 멘토링, 진로직업 체험, 정구부 육성, 농어촌교육특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가정의 행복은 자녀교육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꿈을 꾸고 학부모들이 교육 걱정 없는 교육 1번지 순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육천인재숙을 운영해오면서 사립학교를 비롯 수도권과 국립대학에 매년 30여명의 신입생을 배출하는 등 교육 1번지 순창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당뇨환자 합병증 사전예방 검사 '호응'

순창군, 당뇨 상담실 운영 주민 당뇨 집중 관리

순창군이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등 당뇨 상담실 운영과 마을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당뇨를 집중 관리하는 등 당뇨관리에 앞장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당뇨는 흡연과 음주, 스트레스, 과식, 운동부족 등으로 발생하며, 가족력에 의한 발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피로로 인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저혈당으로 인한 쇼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군은 경로당과 재래시장 등을 찾아가 내 혈관 숫자알기 캠페인을 전개해 신규 당뇨환자 125명을 등록했으며, 당뇨환자 777명을 매일 관리하고 있다.

또한 당뇨환자 집중마을(118곳 496명)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당뇨환자들이 혈당조절목표치(식전 130이하, 식후 180이하)로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에 적극 나

서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는 관내 안과 의원과 협약, 안과검진을 연중 실시해 현재까지 728명을 검진, 이상자 79명의 치료를 도왔다.

또 3개월간의 혈당 평균을 가능해보는 당화혈색소 검사와 신장질환 사전예방을 위하여 단백뇨 검사를 1,231명에게 실시, 이상자 374명에게 지역 내 병·의원으로 연계해 당뇨 환자 합병증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당뇨병환자는 년 1회 합병증 검사를 실시해 합병증 진행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도 지속적인 당뇨환자 관리로 주민들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스마트 팜 영농 지원

남원시는 시가 직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영농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도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고 영농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을 농가에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장에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접목시켜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소개, 스마트팜 체험형 교육, 원격모니터링, 농업데이터 활용 컨설팅의 역할을 수행하고, 농업인들에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영농기술을 보급해 변화하는 농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클라우드 시스템, 작물이미지 생육정보 예측, 실시간 작물 병해 진단 및 처방, 스마트농장 제어 기술 등 스마트팜 핵심기술을 안정적으로 보급해 농업인들의 시행착오를 줄여 기회비용 절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 테스트베드교육장을 시험가동 중이라며, 앞으로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관내 선도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시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커피전문점 식품안전관리 점검

임실군은 비위생적 식품관리에 따른 식품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커피전문점 등 15개소에 대해 식품안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머그컵 등의 위생상태가 취약하고 우려됨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위생관리담당 직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2개반을 편성하여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컵, 식기 등 위생상태, 조리기구 세척 및 소

독, 식자재공급의 적정성, 유통기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여부, 무허가 제품의 사용 및 보관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준백 의료지원과장은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와 종사자의 꼼꼼한 안전수칙 준수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위생, 음식물의 보관·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양파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받아

남원시는 오는 3월31일까지 양파에 대한 '2019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읍면동 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받는다. 전라북도 삼락농정 대표사업인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다.

올해부터 본 사업에 돌입함에 따라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주요사항 개선안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대상품목은 2개 품목에서 5개 품목으로 확대되어 올에는 양파, 생강, 건고추, 노지감자, 대파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300평)에서 10,000㎡(3,000평)로, 지원대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 등에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계통출하를 하는 농업인으로, 품목별 신청기한내에 사업신청서와 출하계약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의 경우 2018년 양파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에 지난 1월 9천5백만 원을 지급해 약정출하를 이행한 121 농가가 수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나서

남원시가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이하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시는 지리산중심도시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부지확보의 용이성을 앞세워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센터 후보지로 제안한 위치는 운봉읍 지리산 자락의 연수관광지 예정 부지로, 이곳은 해발 600m 고원지대에 위치해 최적의 축구훈련장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연수관광지와 연계해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연평별 대표팀 선수와 지도자, 심판들의 훈련과 교육, 일반 국민



과 다른 종목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로, 대한축구협회는 센터 33만㎡ 부지에 2023년까지 1500억 원을 들여 소형 스타디움(1,000명 이상 수용), 천연·인조 잔디 축구장(12면), 풋살장(4면), 테니스장, 족구장 등을 갖추

고,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수영장, 축구과학센터 등 실내 체육시설도 조성한다. 컨벤션센터와 세미나실, 강의실, 연구실, 숙소(300명 수용)와 식당, 휴게실, 사우나 시설과 상근과 비상근 인원 200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도 마련된다.

축구종합센터 유치전에는 전국에서 24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축구협회는 2~3월 중 유치 신청기관의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현장 실사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남원시를 비롯해 군산시와 장수군이 축구종합센터 유치 신청을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농촌지도자회 역량강화교육 실시

한국농촌지도자 임실군연합회(회장 박세일)는 11일 임실군청 농민교육장에서 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시총회를 실시했다.

이승은 강사가 진행한 역량강화교육에는 지역사회에서 선도 역할을 하는

농촌지도자회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농업리더로 발전하기 위한 자세란 주제로 참여형 교육을 실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2019년 사업계획수립과 활성화 방안 토의 및 읍면단위 주요활동계획 발표

시간을 가졌다. 과학영농과 농촌문화 향양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후계영농세대 육성과 농가소득증대를 지역사회 발전과 농촌근대화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회는 12개 읍면에 500여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